

“친구들과 참선하며 인성도 길러요”

울산 황룡사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인기



울산 황룡사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로 주목받고 있다. 학생들의 참선 장면.

4월 27일 울산 황룡사 법회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두 눈을 감고 차분하게 참선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참선의 자세를 가다듬는다. 그리고는 제각각 그 주에 있었던 자신의 감정변화를 들려준다. 또한, 집중력이 쉽게 흐려지는 아이들은 황룡사의 ‘참선’을 통해 집중력과 인내심을 향상시키고 있다.

울산 황룡사가 현대에 맞는 ‘교육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울산 학산동에 있는 황룡사는 만 9세부터 만13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와 만14세부터 만25세까지를 위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어린이 13명과 청소년 25명은 자기개발과 신체 단련, 봉사활동과 탐험활동 총 4가지 활동영역에 참여하고 있는데 각자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보고서로 제출할 경우 학교에서 공인하는 봉사점수를 얻을 수 있다.

황룡사의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는 2010년부터 시작했다. 주지

황산 스님은 현대의 청소년들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족하다. 가족이 최소화되고 맞벌이가정이 대부분인 현대에 외롭게 크고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대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꾸준한 운영으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수상자 금장 1명, 은장 12명, 동장 32명을 배출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학생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일요일 대부분의 시간을 황

자연스럽게 길러준다. 가족이 최소화되고 맞벌이가정이 대부분인 현대에 외롭게 크고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대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꾸준한 운영으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수상자 금장 1명, 은장 12명, 동장 32명을 배출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학생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일요일 대부분의 시간을 황

영화관람 등 프로그램 다채 매주 일요일 참선 호응 커

통사에서 보낸다. 낮에는 신체활동인 ‘참선’ ‘튼튼체조’ ‘멘토와 멘티의 시간’ 오후에는 황산스님이 진행하는 ‘다큐멘터리 또는 영화보고 토론하기’ 등의 교육들이 이루어진다. 체계적인 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도움으로 눈높이에 맞는 ‘아트공작 만들기’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는 것이라 근저 도서관의 교실을 꾸며 주는 등의 봉사활동으로 연결해주고 있어 ‘자발성’과 ‘자타이행’을

김나영 객원기자

“무명에서 벗어나 밝은 마음으로”

부산 범어사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가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을 4월 29일 경내 대웅전 앞에서 봉행했다. 총 1만여 개의 등불이 밝혀진 범어사 점등식에는 주지 수불 스님,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신도회장), 한복순 다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수불 스님은 “오늘 어둠과 무명에서 벗어나 마음에 밝은 불을 켤 수

있도록 큰 인연을 맺어주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심을 다함께 봉축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적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애통해 하고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부대중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 최후의 일인까지 무사생환 할 수 있도록 발원하자”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한복순 범어사 다도회장도 발원



범어사 사부대중의 봉축 점등식.

문에서 “세월호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기원하며 밝은 마음으로 밝은 마음을 전한다.”

김나영 객원기자

원효종 제 13대 종정 추대법회

원효보살 추모대제도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은 원효보살 1328주기 추모대제 및 제13대 종정 설재 대종사 추대식 대법회를 4월 22일 경주 콩코드 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원효종 창건 1980년 수족계 수지 후 강원 사립과를 수학했다. 법화종 종정 신혜 스님, 범어사 청우 스님의 인정과 함께 원효종 경남 총무원장, 중앙총회 부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경남 창원 불정사에 주석하고 있다.

이날 대제에 앞서 대한불교원효종 제13대 종정으로 설재 정광 대종

사가 추대되어, 총무원장스님으로부터 추대장 전달과 함께 불자, 주자 전담이 있었다.

종정 정광 대종사는 1939년 경남 창원에서 출생하여 1974년 수득사 월학 스님으로부터 득도하여 1980년 수족계 수지 후 강원 사립과를 수학했다. 법화종 종정 신혜 스님, 범어사 청우 스님의 인정과 함께 원효종 경남 총무원장, 중앙총회 부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경남 창원 불정사에 주석하고 있다.

행사는 원효종 창건 스님과 총



원효종 13대 종정 추대 법회식.

무 부원장 보원 스님의 추모사에 이어, 원혜 스님의 발원문, 권공염불로 법주·바라·작법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총무원장 우석 스님이 임명장, 감사패, 위촉패 수여한 뒤 종도 대회와 종헌준법 배포, 종도 단합 결의로 마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기업인 발심... 경제 활성화 다짐



삼광사는 4월 29일 법회원에서 기업인 포럼 발대식을 열었다.

삼광사 기업인포럼 발대식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가 ‘삼광사 기업인포럼 발대식’을 4월 29일 경내법회원에서 열었다. ‘삼광사 기업인포럼’은 부산의 기업인 6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불자간의 화합 도모 뿐만 아니라 부산경제 활성화 및 협력 상생 방안 토

론 등 다양한 학술세미나를 분기별로 진행한다. 최주덕 기업인포럼 회장(삼광사 신도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원 스님을 법문법사로 모시고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 도반으로서의 인연은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으로 맺어진 것이라 믿는다. 또한,

기업인이자 삼광사 신도로서 우리 모두 발심해서 나눔과 배려에 앞장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지 무원 스님은 “사회와 기업을 운영하는 것 모두가 경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경영이다. 마음이 중심이 되면 자연히 부처가 따른다. 경영하시는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인사부터 시스템까지 신경 쓴다면, 무명한 사회가 되고 나아가 투명한 나라가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원스님은 “삼광사에 기업인 포럼을 마련한 것은 삼광사가 부산과 나라의 발전에 중심이 되길 바라고 때문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삼광사 주지 무원스님, 오보현(주)우성통신 대표이사, 허영배 한국바이오산업 대표이사 등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부산 내원정사 동자승 삭발수계식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는 4월 29일 ‘동자승 8일출가’를 진행했다. 부산 내원정사 원아들로 구성된 어린이 15명은 이날 ‘삭발수계식’을 받고 단가 출가 불교문화 및 승가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삭발식에서는 주지 정련 스님을 비롯한 내원정사 소임스님들이 직접 원아들의 머리를 깎아주었으며, 승가복 착용과 연비의식을 통해 동자승으로 거듭나는 수계식을 가졌다. 계첩 수여식에는 주지 정련 스님이 직접 동자승들의 법명의 뜻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며 의식에 특별함을 더했다.

주지 정련 스님은 “오늘 이렇게 동자승들이 계를 받은 것은 모두 과거로부터 복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제 진정한 스님으로 태어났으니 의젓하게 사찰 생활을 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동대사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천태종 대구 동대사(주지 김도산)는 4월 27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대법회를 관음전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엄숙하게 치러졌으며 사

부대중은 점등식에서 두손모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주정산 원효종 스님은 “부처님이 이땅에 오심의 참뜻은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문을 열어 보여주는 것으로 실상을 알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기성인들이 참회하여 무명을 밝혀 희망의 싹을 키워가



동대사에서 열린 봉축 점등식

기 위한 염원으로 불을 밝힌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 회문사 개소

삼존 부처님 점안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총무원장 주석 사찰인 부산 부곡동 회문사에서 법인 개소식이 4월 27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종도 스님들과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 해 우도암 총무원장 스님을 증명법사로 회문사 부처님 삼존법 점안 법회가 열렸다.

법일 주지 스님은 “전국 각 처에서 어려운 결을하신 종도 도반 스님

들께 감사드리고 여법하고 장엄한 개원불사에 동참한 생활불교 신도들에게 공덕을 치하하고 기쁘고 고맙다”고 전했다. 증명법사 도암 총무원장 스님은 “부처님 점안은 내 마음이 만물만생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혜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대한불교 원조계종은 1989년 조계사에서 발기인 대회로 창종되어 2012년 9월 대구 동구 율하동에서 이전 개소 12월 해우 도암스님이 총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 개소식

무원장으로 추대되어 2013년 1월 종교법인 세계불교승가총연합회 예하단체 등록한 후 2014년 4월 27일 대한불교원조계종총본산 총무원 회문사 개원 법회를 봉행하게 되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佛記 2558年 甲午年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동화사
TEL : 053)982-0101~2 / FAX : 053)985-4405
www.donghwasa.net

<동화복지재단>
동화사자비원, 동원어린이집, 선우어린이집,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자비의 집

인등 불사와 법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기준에 없는 특허기술이 적용된 면 자체 발광 인등으로 법당 전체가 황금색 조명으로 장엄됩니다.

발명특허
발명특허번호 제10-1350047호

-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 법당 크기에 따라 27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성불원 LED 인등의 특징

- 1 기존의 인등과 달리 월등한 밝기로 법당 전체가 장엄됩니다.
- 2 LED만의 저렴한 전기료와 긴 수명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3 원하시는 어떠한 배경 불화도 제작 가능합니다.

불은 30년 정진으로, 스님들의 장엄 불사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전화 011-276-5251, 010-6857-0108

無碍 양학도 합장 인사 올립니다